

비평에 투영된 창작 음악 읽기: 『관현악: 사람과 세계의 창窓』 (음악미학연구회 엮음)

이복남(명지대학교, 교수)

“비평이 살아야 창작이 산다”라는 기치 하에 (사)한국작곡가협회¹⁾가 음악미학연구회와 세미나를 시작한 것은 한국 창작계에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2011년부터 대한민국 실내악작곡제전에서 발표되는 창작곡들을 다루는 작업이 매년 실행되었다. 연주에 앞서 당일 공연될 작품들의 분석 및 해설을 통해 청중에게 작곡가들의 생각과 작품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창작 음악에 대한 비평 담론의 주춧돌이 마련되는 역사적인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음악학자들에게 참고 자료도 없이 동시대 창작 음악을 연구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처음 접하는 악보를 뚫어지게 보면서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고 고민하였다는 음악학자들의 멘트에서 그들의 애로와 수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음악학자들에 의한 한국 작곡가와 작품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작곡가로서 매우 기쁘고 반가운 현상이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작곡가를 중심으로 연구한 서적이나 시대적 분류에 의한 연구들이 행해지기 시작하였고 현재 아카이브 구축이나 구술 채록 사업과 같은 작업들도 진행되고 있다. 음악미학연구회가 펴내는 일련의 『한국창작음악-비평과 해석 사이』 시리즈는 이러한 기반에서 활발하게 시작된 음악학자들의 연구 작업의 결과이다. 주어진 시간 안에 한 작곡가의 작품세계를 조명하고 한 작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1) (사)한국작곡가협회(Korean Composers Association, KOCOAS)는 작곡가들의 단합 및 창작 진흥, 음악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1954년 창립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순수음악 작곡가와 단체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1978년 2월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26개의 작곡동인 및 단체가 가입되어있는 국내에서 가장 큰 작곡가들의 단체이다(홈페이지: <http://www.kocoas.com>).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대 작곡가들을 향한 음악학자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연구 활동은 2018년 『실내악: 무한한 상상력의 락樂』(이하 『…락樂』으로 표기함)이라는 결과물로서 “창작과 비평을 잇는 아름다운 다리”²⁾ 하나를 놓았다.

『관현악: 사람과 세계의 창窓』(이하 『…창窓』으로 표기함)은 『…락樂』에 이어 2019년 음악미학연구회가 엮은 『한국창작음악-비평과 해석 사이』 두 번째 시리즈이다.³⁾ 『…락樂』이 30-40대 작곡가 29명의 대표적인 실내악을 다루었다면, 『…창窓』은 2000년대 이후 창작된 28곡의 관현악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13명의 음악학자들이 참여한 『…창窓』은 주제나 다양한 문제의식에 따라 6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었고, 각각의 카테고리는 3-8명의 작곡가와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제I장 ‘삶과 일상의 여정을 찾아서’에서는 강은수의 《빈들에서》(원유선), 김진수의 《카레이스키의 편지》(원유선), 이소연의 《전환점》(강지영), 진규영의 《나의 회상》(장유라), 유범석의 《마포 나무》(지형주)가, 제II장 ‘음향과 구조, 음악의 본질에 관한 탐구’에서는 김수혜의 《화광동진》(김서림), 김은성의 《차가운 흐름》(이산하), 박준영의 《심포니》(원유선), 이홍석의 《암흑의 뒤편》(손민경), 조우성의 《나비효과 II》(김석영), 지성민의 《vv_vn__n_vn_v》(김서림), 한경진의 《롤러》(손민경), 홍성지의 《프리즈마틱》(신예슬)이, 제III장 ‘영성과 정신성의 음악적 구현’에서는 이신우의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4개의 탄색의 노래》(오희숙), 장춘희의 《카르마》(유태연), 전상직의 《크레도》(강지영)가, 제IV장 ‘한국적 소리와 정신을 담다’에서는 박용빈의 《홍보가》(유태연), 이문희의 《소릿거리》(이산하), 이복남의 《올이랑》(손민경), 이인식의 《서울아리랑 랩소디》(이혜진), 임준희의 《한강》(김석영)이, 제V장 ‘심상의 색채, 낭만의 정원’에서는 김새암의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심지영), 백영은의 《하늘 들꽃》(김석영), 조광호의 《침묵의 정원 I》(심지영)이, 제VI장 ‘세상에 대한 성찰’에서는 나효신의 《곰의 노래》(장유라), 임지선의 《그림자의 그림자》(지형주), 정종열의 《스틸》(원유선), 황성호의 《슬픈 강》(지형주)이 다루어졌다(괄호 안은 음악학자).

작곡가별로 간단한 프로필을 정리하고 작곡가의 작품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특징을 한 줄로 서술하였다. 이어서 넓은 시각에서 작가적 정신세계 및 작품세계에 관해 조망하였으며, 작곡가들의 대표 관현악곡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비평을 실었다. 마지막에는 작곡가와의 인터뷰가 실려있다. 이 인터뷰는 음악학자가 작품을 연구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을 묻고 답하는 대화 형태인데, 28명의 작곡가별로 모두 다른 맞춤형으로 질문하면서 작곡가들의 진솔한 생각과 개성들을 담고

2) 정태봉, “서평: 창작과 비평을 잇는 아름다운 다리,” 『음악이론포럼』 26 (2019), 219.

3) 음악미학연구회 엮음, 강지영, 오희숙 책임편집, 『한국창작음악-비평과 해석 사이 002. 관현악: 사람과 세계의 창窓』 (서울: 모노폴리, 2019).

있다. 인터뷰의 질문은 곡의 심층적인 분석보다 작품을 통해 작곡가가 추구했던 바나 그것의 구현을 위한 작곡 방법 등을 중심으로 한다. 작곡가별로 다양하게 던져진 질문들을 작곡가들 또한 각자의 개성이 담긴 이야기로 생생하게 풀어내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각각의 곡마다 QR코드를 사용하여 악보와 음원을 온라인에 공개함으로써 독자들이 음악을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음악은 연주회에서 만나지 않는 한 자주 듣기 힘든 경우가 일반적인지라 QR코드의 삽입은 이러한 간극을 좁혀줄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이다. 전문적인 학술서적을 지향하면서도 어느 정도 현대음악에 소양과 관심이 있는 청중(또는 독자)들이 좀 더 내용을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구성, QR코드를 통해 배려했다는 점은 본서가 특별히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 현대음악에 관한 많은 출판물 중 『...창窓』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넓은 스펙트럼과 비평의 요소 때문이다. 이처럼 30대부터 중견, 원로작곡가까지 아우르는 넓은 스펙트럼으로 작품을 연구하고 출판한 책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처음이 아닐까? 『...창窓』에 실린 작곡가와 작품들이 한국 관현악 작품을 모두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본서의 이러한 시도는 같은 시대에 숨 쉬고 활동하고 있는 잠재력 있는 한국 작곡가들에게 창작의 동력을 제공하고 한국 작곡가들에 대한 기초적인 레퍼런스로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창窓』은 [한국창작음악_비평과 해석 사이] 시리즈로서 그 연구의 확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시리즈가 지속된다면 한국 현대음악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로서 향후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작곡가와 작품이 조명받기 위해서 비평은 필수이다. 창작과 비평, 작곡가와 음악학자는 서로 상생하면서 음악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주체인 것이다. 비평가는 작곡가들이 각자의 언어로 서술한 음악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전함으로써 작곡가와 청중 간의 낯섦이라는 안개구름을 걷어내고 흐린 눈에 초점을 맞춰 피사체를 선명하게 해주는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 이처럼 비평은 관객과 작품이 만나는 가교의 역할을 하며, 작곡가에게는 다음 작품으로 나아갈 동력을 주기도 한다. 음악 미학연구회의 『...창窓』은 ‘비평과 해석 사이’를 넘나들며 환류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작곡가, 청중 모두를 위해 의미 있는 내용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락樂』에 이어 『...창窓』의 출판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작곡자와 음악학자 간의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가능케 하는 비전을 제공한 성공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한국 창작음악비평 활성화의 본격적인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